

## 특 집

**[개교 70주년 기념] 도서관 전시회 개최 및 70년사 발간**

박 정 주 / 김 기 숙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lt; 목 차 &gt;

## I. 들어가면서

## II. 기념 전시회 개최

1. 전시 개요
2. 추진 경과
3. 전시 및 개막 행사
4. 전시 구성

## III. 도서관 70년사 발간

1. 발간 개요
2. 집필진 구성 및 계획 수립
3. 내용 구성

## IV. 기념사업을 마치며

## I.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학내에서는 많은 기념사업들이 기획·추진되었다. 도서관에서도 개교 7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개관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전시 주제는 ‘도서관 70년! 세계를 품다’로 정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성장해온 중앙도서관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도서관 모습을 구현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개관 이후 7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 발간도 추진하였다.

이번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와 도서관 70년사 발간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과정이 향후 도서관 역사에 있어 중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II. 기념 전시회 개최

### 1. 전시 개요

이번 전시는 서울대학교 70년 동안의 도서관 소장자료와 기록을 통하여 도서관 70년사를 재조명하고,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온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세계와 호흡해 온 도서관 역사를 조망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에 전시회명은 서울대학교 70주년 기념 표어인 ‘세계를 품고 미래로’에서 착안하여 ‘도서관 70년! 세계를 품다 (Library, embrace the world)’로 정하였다. 전시기간은 2016년 10월 12일(수) ~ 11월 4일(금)로 하였고 전시 장소는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으로 하였다.

### 2. 추진 과정

#### 2.1. 준비 과정

전시회 개최를 위해 2016년 5월 계획 수립부터 11월 5일 전시 철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일정표대로 진행 상황이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확정된 일정표이다.

[표 1] 개교 70주년 전시 추진 일정

날 짜	내 용
2016. 05. 03.	사업계획 수립 및 TF 구성
2016. 06. 08.	전시기획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2016. 06. ~ 09.	자료 조사 및 구성안 준비
2016. 07. 21.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16. 08. 30.	계약 체결(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
2016. 09. 27.	중간보고회 개최(사업수행자)
2016. 09. 28. ~ 10. 03.	전시기획 설계(사업수행자)
2016. 10. 04. ~ 10. 11.	전시시설물 제작 및 설치
2016. 10. 12.	개막식 행사 개최
2016. 11. 05.	전시물 철거

위 일정에 따라 추진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TF 구성은 자료 이용 부서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전시 TF가 구성된 후에는 전시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전시 기획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 회의를 6월에 개최하였다. 이후부터는 구성된 TF가 중심이 되어 전시 구성 및 자료 조사를 시작하였고, 동시에 전시 업체 선정 공고를 병행하였다.

## 2.2. 세부 진행 사항

### 1) 전시업체 선정 및 일정

기념 전시를 위한 업체선정은 조달청 용역입찰을 진행하였다. 전시회 추진 예산으로 5,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입찰 공고 결과 1차는 유찰되었다. 2차 입찰은 다행히도 전시일 조정 등을 통해 도서관 전시회 경험이 있는 업체(디자인하늘)를 선정할 수 있었다. 계획 수립 당시의 전시주제 및 구성 중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별하면서 전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전시일시는 당초 10월 초에 개막하여 10월 한 달 동안의 전시 기간을 계획하였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전시 개막일을 조정하게 되었다. 10월 13~14일 서울대학교 도서관 주최로 열린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학술세미나’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2일을 개막일로 결정하였고 11월 4일까지 전시 기간을 확정하였다.

전시 장소는 2015년 2월에 신축된 관정관에 전시할 만한 여유 공간은 있었지만, 관정관 출입은 학내 구성원에게만 공개되어 관람객의 접근이 제한적이고, 관람객 접근이 용이한 1층 로비는 전시 자료의 관리 문제가 우려되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메인 전시는 본관에서 진행하고, 차세대 영상 체험 전시는 관정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 2) 전시 TF 구성 및 전시 자료 선정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전시 자료 선정이었다. 예산 및 전시 준비 기간의 부족 등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할 여력이 되지 않아 결국, 전시 TF의 아이디어를 모아 전시자료를 선정·구성하였다.

전시 TF 구성 후, 전시 주제별로 TF 내 소그룹을 나누어 담당 주제에 대한 전시자료 수집 및 선정을 진행하였다. 사진과 도서관 관련 발간자료 및 사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사진전·사료전 팀, 우리 도서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 구성을 담당하는 장서전 팀, 슈클라 장서를 비롯한 해외 기증도서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획 전시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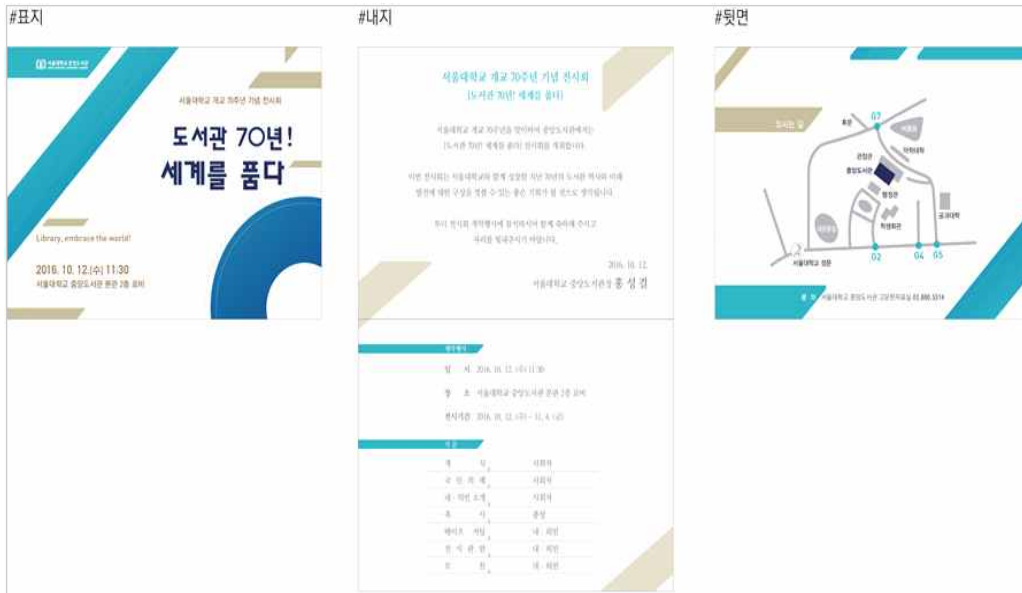
관정관의 전시는 6월부터 기본 콘셉트를 잡고 자료 조사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차세대 영상 체험 공간 구축을 위한 전시용역을 추가로 진행했으며,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를 하였다.

[표 2] 개교 70주년 기념전시회 TF

구분	소속	이름	담당 업무		비고
총괄	정보관리과장	신승철	70주년 기념전시회 총괄		
기획	학술정보운영팀장	주성희	본관 행사 내용 감수		
	디지털도서관팀장	김미향	관정관 행사 내용 감수		
메인 전시	학술정보운영팀	박정주	중앙도서관 70년 사진전 / 사료전		
	학술정보서비스팀	이윤경			
	학술정보운영팀	박상근			
	학술정보운영팀	장혜영			
	학술정보서비스팀	임다훈			
	학술정보운영팀	정희주	중앙도서관 70년 장서전		
	학술정보서비스팀	조은별			
	학술정보운영팀	최윤정			
기획 전시	학술정보운영팀	송지형	슈클라 박사 기증도서 전시회 및 기타 해외 기증도서		
	학술정보운영팀	강지은			
	학술정보운영팀	정희주	시진평 주석 기증도서 전시회 및 기타 해외 기증도서		
	학술정보서비스팀	조은별			
	학술정보운영팀	최윤정			
관정관 전시	디지털도서관팀	김기숙	빛과 영상이 만나다	차세대영상체험전, 가상현실(VR)체험존	
	디지털도서관팀	김대종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	
	관정관서비스팀	최미순		스누씨네(SNU CINE)	
	관정관서비스팀	장신문			
행정/ 예산	학술정보운영팀	박상근	전시업체 선정 및 예산 관련		간사
	학술정보서비스팀	임다훈			회의록 작성 등

또한 전시구성과 전시자료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홍보에 집중하였다.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홍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온라인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SNU Now 공지 등
- 오프라인 : 홍보물 제작(현수막·X-배너 설치, 기념 책갈피 제작) 및 초청장 발송 등



[그림 7] 개막행사 초청장



[그림 8] 전시 안내 현수막



[그림 3] 전시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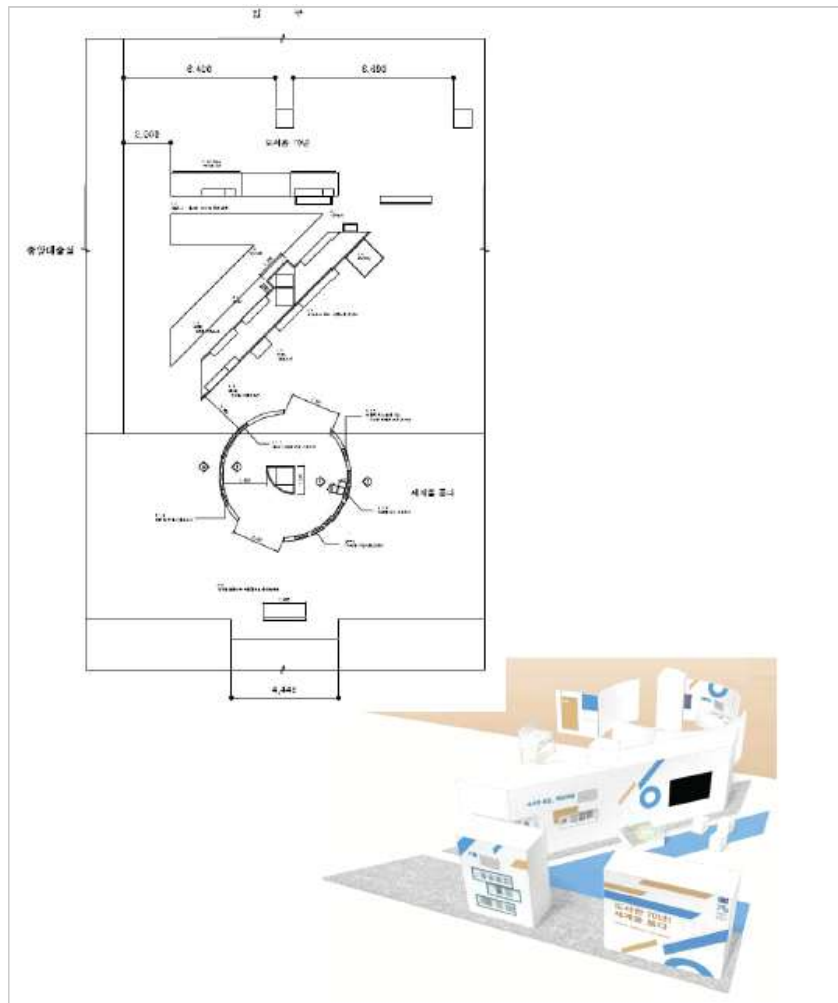


[그림 4] 기념 책갈피

### 3. 전시 및 개막행사

전시 개막일과 전시 기간이 확정된 후, 준비 과정에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전시 TF를 중심으로 업무별 담당자를 정하여 전시 및 개막행사를 준비하였다. 전시장은 크게 3군데로 본관, 본관 및 관정관 연결통로, 관정관으로 구성하여 전시하였다.

전시장의 전시 구조물은 개교 70주년의 ‘70’을 형상화하여 ‘7’에는 도서관 역사를 ‘0’에는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본관 전시의 배치 평면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본관 전시 배치 평면도



[그림 6] 본관 - 메인 전시장 입구



[그림 7] 본관 전시 - 도서관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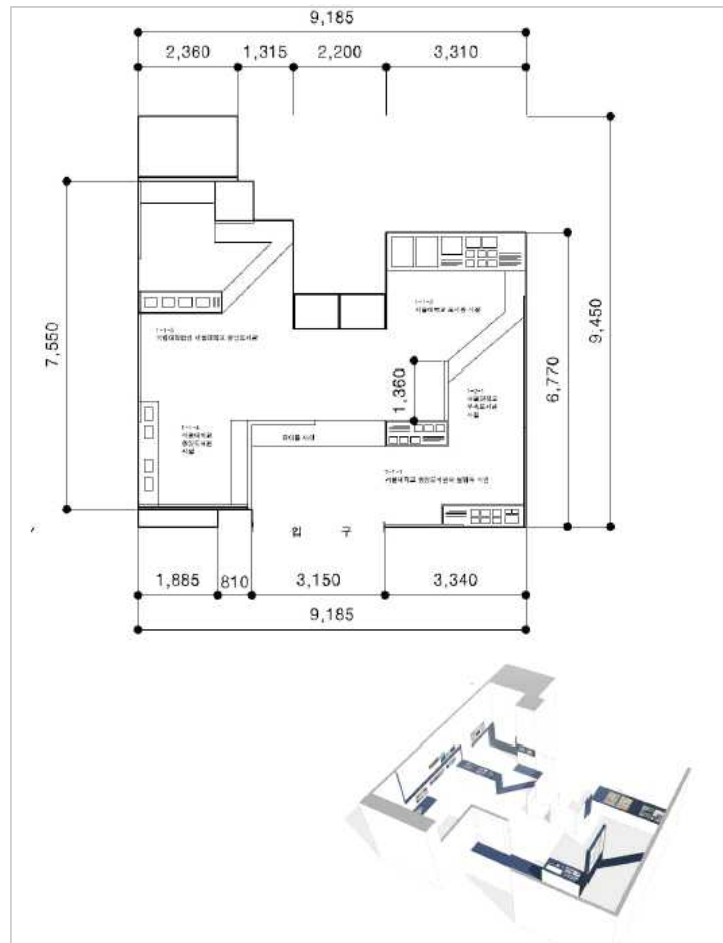


[그림 8] 본관 전시 - 세계를 품다



[그림 9] 세계와 교류하는 중앙도서관(좌) 및 전시회 기념 책갈피(우)

본관과 관정관의 연결 통로의 전시장 평면도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관정관 연결 통로 전시 평면도

전시 개막 행사를 10월 12일로 정하고, 참석할 귀빈 명단을 확정하였다. 개교 기념 행사이므로 내빈들로 초청인사 범위를 정한 다음, 본부 주요 보직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초청장 발송과 함께 개막 행사 의전 및 오찬 준비를 위한 참석 여부 확인도 잊지 말아야 할 점점 사항이었다.

개막행사는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본관 2층 로비에서 성낙인 총장, 홍성걸 관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내빈들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그림 11] 개막행사 사진

#### 4. 전시구성

이번 전시는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앙도서관 70년 역사’를 포함하여, 우리 도서관 소장자료와 기록을 통해 도서관 70년 역사를 돌아보는 ‘도서관 70년!’ 전, 일찍부터 세계 유수의 대학과 자료 교환 업무를 시작하는 등 세계화를 선도하여 온 중앙도서관을 재조명하는 ‘세계를 품다’ 전, 관정관에서 차세대 영상과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빛과 영상이 만나다’ 전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인 도서관 70년!’ 전에서는 도서관 역사를 도서관 3요소라 할 수 있는 사람(사서/이용자), 책, 공간을 주요 소재로 하여 구성하였다. ‘사람(人)’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고(故) 백린 선생을 소개하였다. 도서관 역사를 돌아보는 ‘기록(記)·회고(顧)’에서는 1963년 9월에 창간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도서관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도서관이 발간해 온 발전계획,

도서목록 등의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책(冊)’에서는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가 이용자에게 이용되기 위해 거치게 되는 도서 등록 및 정리 과정을 소개하고, ‘N번째 등록도서’와 ‘서울대인이 많이 읽은 도서’를 통해 이용자가 책을 이용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연구 결과물인 논문을 소개하는 ‘배움(學)’에서는 학위논문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수기로 작성된 최초 학위논문부터 타자기, 프린터, 디지털인쇄까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학위논문 작성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역사를 ‘공간(館)’을 통해 동숭동캠퍼스 시절,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관정관 신축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세계를 품다’ 전에서는 세계와 교류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그렸다. 2016년에 약학대학 오세경 동문이 기증한 고(故) 제럴드 슈클라(Gerald Shklar) 박사 문고를 소개하는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 및 독일의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 장서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발행국가별 통계를 기초로 하여 상위 20위에 속하는 나라들의 대표도서를 소개하는 ‘나라별 대표 수집도서’ 코너를 마련하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의 유럽국가와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북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빛과 영상이 만나다’에서는 관정관에서 차세대 영상과 미디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존을 운영하였다. ‘차세대 영상 체험전’에서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대형 메시스크린(Mesh Screen)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에서는 미디어아트 그룹 ‘에브리웨어’ (방현우, 허윤실 부부 작가)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의 대표적인 작품 3점(Memoirs, Oasis, Soak)을 전시하였다. ‘가상현실(VR) 체험존’에서는 전 세계 다채로운 영상 속의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카드보드를 제공하고 직접 조립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누씨네(SNU CINE)’에서는 최근 3년 간 서울대인이 가장 선호한 영화 36편을 상영하였다.

[표 3]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 구성

전시테마	전시제목	전 시 내 용
도서관 70년!	사람(人)	한국전쟁 중에 규장각 도서를 지켜낸 서울대학교 사서의 표상인 고(故) 백린 선생 기념 전시회이다.
	기록(記) · 회고(顧)	도서관 발간 자료와 사진으로 중앙도서관 70년 역사를 돌아본다.
	책(冊)	도서관에서 책을 등록, 정리,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배움(學)	필사나 등사본에서 전자 출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70년간 학위논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본다.
	공간(館)	개관 이후 동숭동 시절에서 관악캠퍼스 이전, 관정관 신축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공간 변화를 볼 수 있다.
세계를 품다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전	오세경 박사가 2016년 기증한 고(故)제럴드 슈클라(Gerald Shklar) 박사의 장서전이다.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중국)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5년 기증한 도서이다.
	위르겐 코카 기증도서(독일)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증한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의 기증 도서이다.
	나라별 대표 수집도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대만, 북한에서 수집한 도서를 전시한다.
	세계와 교류하는 중앙도서관	세계 우수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도서관의 모습을 구현한다.
빛과 영상이 만나다	차세대 영상체험전	‘진리는 나의 빛’, ‘빛을 품은 도서관’, ‘세계를 품고 미래로’의 주제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대형 메시스크린으로 감상한다.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	미디어아트 그룹 ‘에브리웨어’ (방현우, 허운실 부부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Memoirs’, ‘Oasis’, ‘Soak’ 를 전시한다.
	가상현실(VR) 체험존	전 세계의 다양한 영상으로 만들어진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카드보드를 제공하며 직접 조립하는 재미를 만끽한다.
	스누씨네	최근 3년 간 서울대인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영화 36편을 상영한다.

## 4.1. 도서관 70년!

### 1) 사람(人) : 사서의 표상 고(故) 백린 선생

백린(白麟)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973년부터 1991년까지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였다. 백린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중에는 소개(疏開)한 도서관의 귀중 자료 분실이 걱정되어 반년 넘게 『승정원일기』 옆에서 숙직한 일화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규장각 도서를 대출해 간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백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과 학문에 기여한 관련 도서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 가) 도서관계의 기여

- ① 『古書目錄規則』, 1966.
- ② 『한국 도서관사 연구』, 1969.
- ③ 『도협월보』, 1960-1961.

#### 나) 학계의 기여

- ④ 『규장각 장서에 대한 연구』, 196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석사논문
- ⑤ 『서지학』 창간호 1968. - “이등박문에 대출된 규장각 도서에 대하여”

#### 다) 백린 선생 서울대 기증도서(1996년 기증)

- ⑥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1889. 마크 트웨인(Mark Twain) 저.



[그림 12] 도서관 70년! - 사람(人)

## 2) 기록(記) · 회고(顧)

### 가) 도서관보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주요 소식을 담은 『도서관보』는 1963년 9월에 창간된 이래로 도서관 역사를 반영하는 사료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호(題號)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2016년 현재 138호까지 발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창간호부터 주요 변경된 제호를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 ① 『도서관보』 창간호, 1963.
- ② 『書香의 苑』 6권, 1968. - 『도서관보』에서 개제(改題)  
‘책 향기 그윽한 뜰’이라는 뜻으로 당시 최문환 총장이 표지의 제자(題字)를 씀
- ③ 『도서관보』 9권 제1호, 1972.
- ④ 『도서관소식\_인문사회예술편』 제1호, 1979.  
1979년 5월부터 인문사회예술편과 자연과학편으로 나누어 간행
- ⑤ 『도서관소식\_자연과학편』 제1호, 1979.
- ⑥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123호, 2000. - 123호부터 『서울대학교 도서관보』로 다시 개제(改題)
- ⑦ 『도서관보』 135-138호, 2016.

### 나) 도서관 발전계획

- ⑧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a statement on management』, 1972.
- ⑨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용실태조사』 1974.
- ⑩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 1990-2001』, 1990.
- ⑪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 2005-2014』, 2005.
- ⑫ 『중앙도서관 4개년 발전계획』, 2006.
- 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발전계획 : 2016-2020』, 2016.

### 다) 도서목록

- ⑭ 『학술문헌속보 : 과학기술편』, 1967.
- ⑮ 『A classified catalogue of occidental books in the Seoul National Univ. Lib., 1926-1945』, 1967.
- ⑯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1968.
- ⑰ 『일반고도서목록』, 1973.
- ⑱ 『서울대학교 소장 축차간행물 종합목록』, 1975.

⑱ 『국립대학교 소장 축차간행물 종합목록』, 1977.



[그림 13] 도서관 70년! - 기록(記) · 회고(顧)

라)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70년사(회고 영상)

1946년 도서관 개관 이래 현재까지 수집한 도서관 관련 사진 자료를 연대별로 정리한 영상 전시를 통해 도서관 70년 역사를 소개하였다. 이 회고 영상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탐색 경로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 검색 > 컬렉션(고문헌, 디지털 자료 등) > 서울대 개교 70주년 전시회 > 전시 목록 > 도서관 70년!’ 이다.

3) 책(冊)

도서관은 책과 함께 하는 역사이기에, 책을 중심으로 이용자와 같이 만들어 낸 기록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가) 도서관 장서인과 정리 도구

- ① 『C.A. Cutter’s 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
- ② 『듀이십진분류법 : 서울대학교도서관용 수정판』, 1988.
- ③ 『MARC21 for everyone : a practical guide』, 2003.

나) N번째 등록도서

- ④ 『조선법령집람』, 1924. - 최초 등록도서(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시절)
- ⑤ 『Lehrbuch des bürgerlichen Rechts』, 1922. - 서양서 중 첫 번째 등록도서



- ⑥ 『신세기의 원자세력』, 1948. -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초 발간자료
- ⑦ 『Seeds of Conflict』, 1982. - 백만 번째 장서
- ⑧ 『Builder's Guide to Modular』 1996. - 2백만 번째 장서
- ⑨ 『The p-adic Simpson correspondence』, 2016. - 2016년 10월 1일 등록도서

다) 서울대인이 많이 읽은 도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의 『총, 군, 쇠』로 2008년 이후 계속 10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 ① 1998년 - 『피터 노턴 비주얼 베이직 4』, 1996. Norton, Peter 저.
- ② 1999년 - 『定量分析』, 1977. 신윤경 저.
- ③ 2000년 - 『植物生理學』, 1988. Salisbury, Frank B. 저.
- ④ 2001년 - 『社會調査研究方法』, 1986. 김경동 저.
- ⑤ 2002년 - 『美學入門：分析哲學과 美學』, 1986. Dickie, George 저.
- ⑥ 2003년 -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27회』, 2003. 김인숙 외.
- ⑦ 2004년 - 『한국사특강』, 1990. 한영우 저.
- ⑧ 2005년 - 『한국사특강』, 1990. 한영우 저.
- ⑨ 2006년 - 『(표준)일반화학실험』, 1999. 대한화학회.
- ⑩ 2007년 -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2000. Süskind, Patrick 저.
- ⑪ 2008년 - 『공중그네 : 오쿠다 히데오 장편소설』, 2005. Okuda, Hideo 저.
- ⑫ 2009년 - 『남한산성』, 2007. 김훈 저.
- ⑬ 2010년 - 『총, 군, 쇠』, 2005, Diamond, Jared M. 저.
- ⑭ 2011년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2007. Ziegler, Jean 저.
- ⑮ 2012년 - 『총, 군, 쇠』, 2005. Diamond, Jared M. 저.
- ⑯ 2013년 - 『총, 군, 쇠』, 2005. Diamond, Jared M. 저.
- ⑰ 2014년 - 『에우리피데스 비극』, 1999. Euripides 저.
- ⑱ 2015년 - 『에우리피데스 비극』, 1999. Euripides 저.
- ⑲ 2016년 상반기 - 『정글만리』, 2013. 조정래 저.



[그림 14] 도서관 70년! - 책(冊)

#### 4) 배움(學) : 한 눈으로 보는 학위논문 변천사

서울대학교 최초의 석·박사 학위는 한국전쟁 중에 부산대학에서 1952년 4월 26일 거행된 제6회 졸업식의 박사학위 6명(문학 2명, 이학 3명, 의학 1명)과 석사학위 14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과 각료들이 참석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시대별로 대표적인 학위논문을 전시하였다.

- ① (최초 박사학위 논문) 『배수곡선의 신험리적해법』, 1952. 원태상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② 『(제3회) 졸업논문』, 1949. 조운제 저. ; 원고지에 자필로 쓴 논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③ (1960년대) 『경영자 계발을 위한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1967. 장만기 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학위논문
- ④ (1970년대) 『Time-Dependent neutron transport equation with delayed neutrons』, 1971, 유근중 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사학위논문
- ⑤ (1980년대)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1982. 박정규 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박사학위논문

- ⑥ (1990년대) 『한국의 독점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이재희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학위논문
- ⑦ (2000년대) 『자연어로 기술된 의료 사건의 연대기적 표현을 위한 V-MODEL』, 2015. 박희경 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학위논문



[그림 15] 도서관 70년! - 배움(學)

#### 5) 공간(館)

- ① 『도서관 이전 계획』, 1972.
- ②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건립백서』, 2016.



[그림 16] 도서관 70년! - 공간(館)

## 4.2. 세계를 품다

### 1) (슈클라 문고 설치 기념)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전

슈클라 문고는 제럴드 슈클라 박사의 부인 오세경 박사가 기증한 슈클라 박사의 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동문이기도 한 오세경 박사는 2005년 약학대학에 오세경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후학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작고한 남편 제럴드 슈클라 박사를 기리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슈클라 문고를 기증하였다.

슈클라 문고는 의학에 관련된 중요한 고문헌뿐만이 아니라 과학 일반, 그리고 나아가 유럽 지성사 일반에 대한 중요한 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슈클라 문고의 저서들은 무엇보다 의사로서 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윤리적 함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슈클라 박사의 학문적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슈클라 문고가 포함하고 있는 유럽 지성사의 주요 저서들은 인문학과 문학, 예술 등을 중시했던 슈클라 박사의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슈클라 문고는 1) 의학 전반에 걸친 분야의 고서들 2) 자연사와 생물학, 물리학 등을 포함하는 과학 일반에 관련된 분야의 저서들, 그리고 그의 전공 분야였던 3) 치의학 관련 분야의 저서와 4) 유럽을 포함한 지성사 일반에 관련된 저서들로 분류할 수 있다<sup>1)</sup>.

- 이두갑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가) 의학 관련 고서

슈클라 문고의 고서 가운데 그 시기가 오래된 책들은 주로 의학 관련 책이다. 이는 크게 고대 의학에 관한 책, 르네상스 시기 해부학의 발전에 관한 책, 17-18세기 의학 및 약학의 근대화와 외과술, 생리학, 실험 의학의 발전에 관한 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 (Hippocratis Cei medicorum omnium facile principis opera quae extant omnia), 1567.
- ②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De humani corporis fabrica libri septem), 1970.
- ③ 『의학기준』 (Ars De Statica Medicina), 1728.
- ④ 『약전(藥典): 런던 약전 주해서』 (A physical directory; or, A translation of the London dispensatory), 1678.

1) 이두갑 교수의 슈클라 문고 해제 중 발췌한 내용임

#### 나) 과학일반

슈클라 박사는 의학자로서 생명현상 일반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었으며, 이를 보여 주듯 슈클라 문고에는 자연사나 생물학 분야의 책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⑤ 『뷔퐁 전집』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1825-1828.

⑥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1896.

#### 다) 치과 관련 기술

슈클라 박사의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치과 관련 서적이다. 슈클라 박사는 인간의 치아, 잇몸, 치조의 구조와 기능, 관련 질병을 과거에 어떻게 이해하였고, 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을 다수 소장하였다.

⑦ 『치아의 해부학, 생리학 및 질병들』 (The Anatomy, Physiology, and Diseases of the Teeth), 1831.

⑧ 『인체 치아의 자연사: 그 구조와 이용, 형성과 성장 그리고 질병』 (The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 Explaining Their Structure, Use, Formation, Growth, and Diseases), 1978.

#### 라) 지성사 일반

슈클라 박사의 폭넓은 지성사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책들로, 장 자크 루소와 벤자민 프랭클린의 전집이 있다.

⑨ 『장 자크 루소 전집』 (The works of J. J. Rousseau), 1773-1774.

⑩ 『고(故)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1806.



[그림 17] 세계를 품다 -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전

## 2)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중국)

2014년 7월 4일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한 자리에서 도서 기증을 약속하였으며, 1년 후 중국대사관에서 1만여 책의 중국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를 전달하였다. 중앙도서관은 본관 2층에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설치하고 시진핑 주석이 기증한 도서와 DVD, 시진핑 주석 방명록 서각, 기증자료 목록 등을 비치하고 방문 당시 강연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 ① 『习近平谈治国理政』, 2014.
- ②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2015.
- ③ 『본초강목』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2003.
- ④ 『鲁迅全集』, 2005.
- ⑤ 『沙家浜』 (연환화, Continual picture), 2012.
- ⑥ 『孔子说 = Confucius says』, 2013.
- ⑦ 『中韩文对照版論語』, 2014.
- ⑧ 『中国奥运军团 = Pride of the nation』 (DVD), 2007.
- ⑨ 『北京风情 = Beijing impressions』 (DVD), 2008.



[그림 18] 세계를 품다 -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

### 3) 나라별 대표 수집도서

#### 가) 위르겐 코카 기증도서(독일)

코카 박사는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분단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학문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던 중 한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돕기 위해 제자인 서울대 서양사학과 안병직 교수를 통해 자신의 장서 1만 2천권을 서울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2차에 걸쳐 4,485책을 기증하여 코카문고가 설치되었다.

- ① 『Die deutsche nationalliteratur der neuzeit』, 1858.
- ② 『Otto von Bismarck』, 1898.
- ③ 『Soziologie der Organisation』, 1963.
- ④ 『Klassengesellschaft im Krieg』, 1973.
- ⑤ 『Der Geächtete』, 1972.
- ⑥ 『Der Wahre Jacob : ein halbes Jahrhundert in Faksimiles』, 1977.
- ⑦ 『Die deutsche Revolution : Geschichte der deutschen Bewegung von 1848 und 1849』, 1978.
- ⑧ 『Arbeitsverhältnisse und Arbeiterexistenzen : Grundlagen der Klassenbildung im 19. Jahrhundert』, 1990.
- ⑨ 『Weder Stand noch Klasse』, 1990.

나) 러시아 이반4세 연대기

알렉산드로 티모닌(Alexander A. Timonin)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러 양국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 기증하였다. 전체 30권인 『이반 4세 삼화연대기전집』에는 16만 점 이상의 삼화가 실려 있어, 당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 ⑩ 『Лицевой летописный свод XVI века』, 2013. - 이반 4세 삼화연대기전집(Собрание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х летописей царя Ивана IV)

다) 프랑스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본교 ‘미래 지도자 인문학과정’ 제2기를 수료한 김양곤 대표이사((주) 시우 피앤디)의 출연 도서기금으로 구입한 서양 근대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1751-1772년에 편찬한 『백과전서』는 당시 유럽의 새로운 사상적 조류인 계몽주의를 집대성하고 전파함으로써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 ⑪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1751-1765.

라) 영국 의회자료

영국 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간행한 활동기록인 의회 자료는 크게 의사일정이나 독회의 심의내용을 기록한 의회일지·의사록 종류와 원 내외로부터 제출된 보고서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 ⑫ 『British parliamentary papers 1923』

- ⑬ 『British parliamentary papers 1928-1929』

마) 네덜란드

- ⑭ 『Verhaal van het vergaan van het jacht de Sperwer』, 1920.

- ⑮ 『Hamel's world』, 2003.



바) 대만 국가도서관 기증도서

⑩『註東坡先生詩：焦尾本』, 2012.

사) 일본 주요대학 교환자료

⑪『圖書館情報學概論』, 2014. 東京大学出版会. - 도쿄대학 기증

⑫『アフリカの老人 老いの制度と力をめぐる民』, 2016. 九州大学出版会. - 규슈대학 기증

아) 북한 김학렬 박사 기증도서

⑬『정약용 작품선집』, 1960.

⑭『김옥균』, 1964.

⑮『실락원』, 1992.

⑯『서산대사』, 1998.



[그림 19] 세계를 품다 - 나라별 대표 수집도서

4)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앙도서관 70년 역사

이용자들의 이동이 많은 본관과 관정관 연결통로 공간을 활용하여 시대별로 의미 있는 도서관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역사를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의미 있는 사건을 선별한 후, 대학신문 등 학내 자료를 참고하여 사진자료와 연표를 함께 구성하였다.



[그림 20]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앙도서관 70년 역사

[표 4] 연표로 보는 도서관 70년 역사

대주제	연도	소주제
(1946-1952)	1946. 8.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설립과 시련	1949.1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개칭
	1950. 6.	한국전쟁으로 운영 중단
	1951. 9.	부산 임시도서관 개관
(1953-1974)	1953. 4.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으로 개칭
도서관 업무 정착과 제도 정비	1953.12	서울 복귀 후 도서관 개관
	1961. 5.	도서관 직제와 직무 법제화(서무과, 사서과, 열람과의 3과)
	1961. 9.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정
	1963. 9.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창간
(1975-1991)	1975. 1.	관악캠퍼스 이전, 도서관종합화 시작
관악캠퍼스로의 이전과 종합화	1975. 2.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개칭. 규장각도서관리실 신설
	1978. 3.	국내 최초 장서 1백만 권 돌파
	1980. 1.	도서관 종합화 완료, 전산화 사업 착수
	1990. 8.	한화그룹 김승연 장서기금 250억 출연
	1991. 3.	도서 대출 자동화를 위한 바코드시스템 도입
(1992-2011)	1992. 3.	신간서고(단행본, 연속간행물실) 개가제 실시
지식 기반 사회와 도서관	1992.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개칭. 규장각 분리
	1992.10.	'UN 기탁도서관' 지정
	1993. 4.	열람실 24시간 개방
	1995. 2.	도서관전산화시스템(SOLARS) 가동
	1997.12.	장서 2백만 권 돌파
	2001. 9.	2과 1팀(수서정리과, 정보관리과, 행정지원팀)으로 재편
	2006. 8.	PRDLA / PNC / ECAI 연례총회 개최
	2007. 2.	학과전담 연구지원 서비스 시작
	2007. 5.	도서관 무인 자동 대출 및 반납 시스템 가동
	2011. 3.	수원보존도서관 개관
(2012~현재)	2012. 3.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2012. 5.	관정이중환교육재단, 서울대 도서관 신축에 600억 원 쾌척
	2015. 1.	장서관리 RFID 시스템 가동
	2015. 2.	중앙도서관 관정관 개관
	2015. 8.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 가동
	2015.10.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개관
	현재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추진

### 4.3. 빛과 영상이 만나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우리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빛과 영상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념 전시회를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최첨단 ICT 공간을 지향하는 관정관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 및 상영하여,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도서관의 미래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전시회 구성은 ‘차세대 영상 체험전’,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 ‘가상현실(VR) 체험존’, ‘스누씨네(SNU CINE)’로 구성하였다. 관정관 전시 장소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공간인 1층 관정마루로 선정하였다. 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오고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시를 감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각 전시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차세대 영상 체험전

‘진리는 나의 빛’, ‘빛을 품은 도서관’, ‘세계를 품고 미래로’의 주제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대형 메시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체험전은 디지털도서관팀에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메시스크린과 고광량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메시스크린은 가로 5.2m, 세로 3m의 크기로 기존 일반 스크린과는 달리 특수 코팅된 재질과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여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영상 효과를 준다. 이에 영상 및 미디어, 홀로그램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에도 적합하다. 또한 접이식 물 형태의 전동장치로 관정마루 천장에 설치함으로써 언제든지 스크린을 접거나 펼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의 유연성과 관리의 편의성도 높였다. 고광량 프로젝터는 엡손(EBSON)사의 EB-G7000시리즈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이 프로젝터는 탁월한 이미지의 품질을 제공하는데 WUXGA 해상도(1,902×1,200픽셀)를 통해 Full HD(1,920×1,080픽셀)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화면 투사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함으로써 역동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선택하였다.



[그림 21] 관정관 전시장: 1층 관장마루



[그림 22] 고광량 프로젝터 : EBSON  
EB-G7000시리즈

#### 가)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및 중앙도서관의 모습을 담은 여러 가지 영상 및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도서관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과 서울대의 아름다운 전경을 대형 메시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상영시간(분)	관련 이미지	주제/상영시간(분)	관련 이미지	주제/상영시간	관련 이미지
중앙도서관 소개 03:34		1) 총류 01:00		6) 자연과학 01:13	
관정관 소개 03:39		2) 철학 00:50		7) 융합과학 01:10	
서울대 전경 01:00 관정관 전경 01:00		3) 종교 00:58		8) 예술 01:09	
관정관 사계 00:41		4) 사회과학 01:31		9) 문학 01:33	
		5) 언어 01:13		10) 역사 01:00	

[그림 23] 차세대 영상 체험전 제공 콘텐츠 : 진리는 나의 빛(좌), 빛을 품은 도서관(우)

나) 빛을 품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10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관련된 영상들을 제공하였다. 10개의 주제는 DDC 분류의 총류로부터 역사까지로, 해당하는 관련 이미지와 영상 등을 수집하여 전시하였다.

다) 세계를 품고 미래로

멀티미디어 플라자에 소장되어 있는 영화 자료 중 미래를 주제로 한 10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전시하였으며, 이 영상은 홀로그램 효과를 적용하여 보여주었다.

[표 5] 차세대 영상 체험전 : ‘세계를 품고 미래로’ 제공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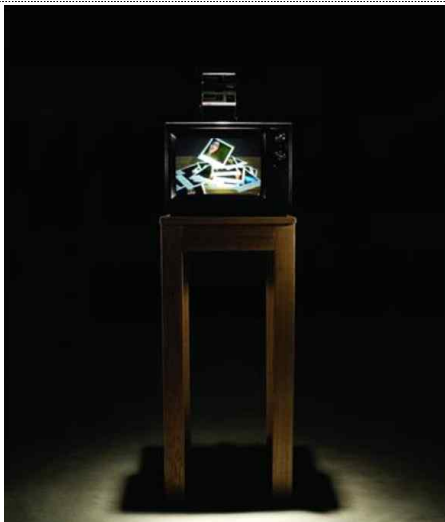
영화/ 상영시간(분)	관련 이미지	영화/ 상영시간(분)	관련 이미지	영화/ 상영시간(분)	관련 이미지
1) 더 폴 (01:00)		5) 휴고 (01:36)		9) 정글북 (01:34)	
2) 그레비티 (01:39)		6) 아바타 (01:02)		10) 매직 인더 문라이트 (01:03)	
3) 미드나잇 인 파리 (01:23)		7)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 (01:23)			
4) 마션 (02:40)		8) 인터스텔라 (00:37)			

2)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 : everyware 소개전

미디어아트 그룹 ‘에브리웨어’ (방현우, 허운실 동문 부부 작가)의 작품을 초청하여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를 통해 도서관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전시는 관정관서비스팀의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하였다. 관정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공간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 ‘Memoirs’, ‘Oasis’, ‘Soak’ 3점을 선정하였다. 초대전에 전시된 3점의 작품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Memoirs(회고록, 2010) <http://everyware.kr/home/?portfolio=memoirs>



우리와 인생을 함께하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장하던 오래된 전자제품들을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회고록이다.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영상 분석과 얼굴 인식, 실시간 3차원 물리 엔진과 같은 뉴미디어적 아이디어로 재미있게 재해석 되었다. 카메라를 응시하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은 브라운관 화면 속으로 떨어져 쌓인다. 이 사진들은 웹사이트 <http://everyware.kr/memoirs> 에도 차곡차곡 쌓여, 관객들은 집에 돌아가 오늘 이 작품과 자신이 만든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다.

나) Oasis(오아시스, 2008) <http://everyware.kr/home/?portfolio=oasis>



미디어 아트 분야의 유명한 전시회인 시그그래프(Siggraph, 2008년)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2009년)에서 선보였던 이 작품은 관객들이 모래를 헤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니터에서 물고기들이 움직인다. 관객이 모니터를 만지면 이에 반응해서 물고기들이 이동한다. 이를 통해 관객이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래를 실제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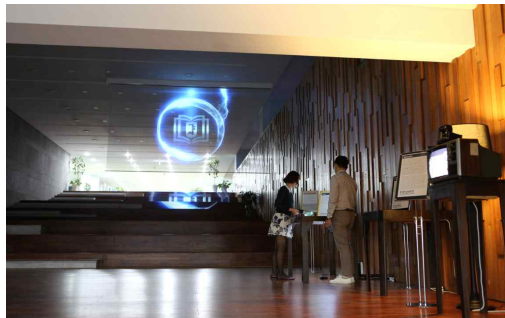


다) Soak(2011) <http://everyware.kr/home/?portfolio=soak>



어두운 방 안에 빈 캔버스가 빛나고 있다. 다가가 캔버스를 만져보면 부드럽게 눌리는 천이 물감을 머금은 듯 아름다운 색이 번지기 시작한다.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혹은 온몸을 천에 기대면서, 천 뒷면에 있는 가상의 물감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패턴을 형성한다.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을 통해 이용자가 전시작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준 전시회였고, 도서관이 학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24] 개교 70주년 관정관 전시회 모습(2016.10.12.)



### 3) 가상현실(VR) 체험존

전 세계의 다양한 영상으로 만들어진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카드보드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가 직접 조립함으로써 가상현실을 손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체험존에서는 중앙도서관에서 자체 제작한 VR 카드보드 1,500개를 배부하였다. 간단한 VR 카드보드 도구를 통해 가상현실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이용자들이 호기심을 갖게 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VR 카드보드는 ‘중앙도서관은 ( )이다’ 라는 문구에 도서관을 이용할 때 평상시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VR 카드보드를 배포하였다.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는 대형 메시스크린에 출력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VR 체험존은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말은 제외하고 5일 동안 운영하였다. 운영 시간은 이용이 많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다. 이 체험존은 디지털도서관팀에서 주관하였으며, 운영 기간 동안 2명씩 조를 편성하여 이용 홍보 및 사용법을 안내하였다.

**‘도서관 70년! 세계를 품다’  
가상현실(VR) 체험존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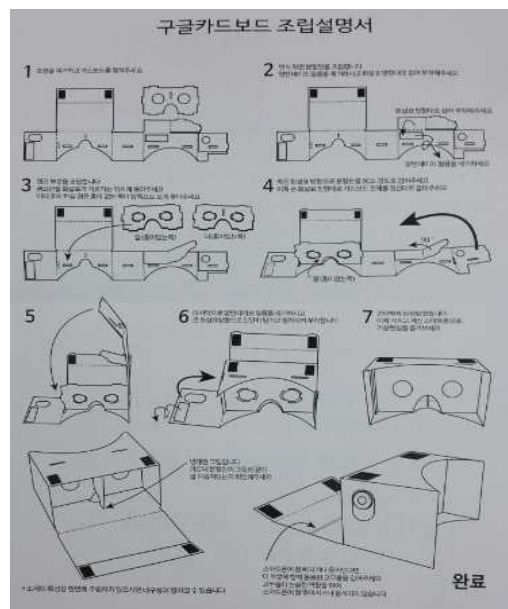
**쉽고 간단하게 가상현실을 즐기는 방법!**

제공되는 카드보드를 직접 조립한 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상 속의 가상현실을 마음껏 감상하세요~~

**【일자 : 2016. 10. 12. (수) ~ 2016. 10. 19. (수), 주말 제외】  
【시간 : 오후 2시 ~ 4시】  
【장소 :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관정마루】**

※ ‘중앙도서관은 [ ]이다’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1일 200개 한정으로 카드보드를 배부합니다. 1일 배부 카드보드 물량이 소진되면 운영시간을 종료합니다.



[그림 25] VR 체험존 안내문(좌) 및 구글 카드보드 조립설명서(우)



[그림 26] VR 체험전 이용자 참여 모습(2016.10.12.)

#### 4) 스누씨네(SNU CINE) ‘서울대인이 사랑한 영화를 만나다’

스누씨네는 ‘서울대인이 사랑한 영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영화 감상회로 최근 3년간 다대출 영화 36편을 선정하여 감상하도록 하였다. 영화 감상회 장소는 중앙도서관 관정관 6층 정인식소극장이었으며, 관정관서비스실에서 주관하였다. 상영은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평일 2회씩, 오전 11시와 오후 3시로 나누어 상영하였다. 상영 영화 목록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6] 스누씨네 상영 영화 목록 및 일정('16.10.12~11.04)

					
500일의 썸머/ Marc Webb 10.12 11:00	그녀 / Spike Jonze 10.12 15:00	이터널 선샤인 /Michel Gondry 10.13 11:00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 /Louis Leterrier 10.13 15:00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 Martin Scorsese 10.14 11:00	비긴 어게인 / John Carney 10.14 15:00
					
캐치 미 이프 유 캔 / Steven Spielberg 10.17 11:00	메멘토/ Christopher Nolan 10.17 15:00	인터스텔라 / Christopher Nolan 10.18 11:00	트루먼 쇼 / Peter Weir 10.18 15:00	라이프 오브 파 이 / Lee Ang 10.19 11:00	비포 선라이즈 / Richard Linklater 10.19 15:00
					
비포 선셋 / Richard Linklater 10.20 11:00	비포 미드나잇 / Richard Linklater 10.20 15:00	시간을 달리는 소년 / Hosoda Moru 10.21 11:00	브이 포 벤데타 / Jes McTeigue 10.21 15:00	윈스 / John Carney 10.24 10:00	세 얼굴이 / Rajkumar Hirani 10.24 13:00
					
쇼생크 탈출 / Frank Darabont 10.25 11:00	인셉션 / Christopher Nolan 10.25 15:00	위대한 개츠비 / Baz Luhrmann 10.26 11:00	킹스 스피치 / Tom Hooper 10.26 15:00	신세계 / 박훈정 10.27 11:00	셜록 / Paul McGuigan 10.27 15:00
					
그래비티 / Alfonso Cuaron 10.28 11:00	유주얼 서스펙트/ Bryan Singer 10.28 15:00	하울의 움직이는 성 Miyazaki Hayao 10.31 11:00	빅 히어로 / Don Hall 10.31 15:00	형제개임 판엠의 불꽃 / Gary Ross 11.01 11:00	범죄와의 전쟁 / 윤종빈 11.01 15:00
					
부당거래 / 류승완 11.02 11:00	인사이드 아웃 / Pete Doctor 11.02 15:00	양들의 침묵 / Jonathan Demme 11.03 11:00	월타의 상상은 현실 이 된다/ Ben Stiller 11.03 15:00	살바다오 플라이박 David O. Russell 11.04 11:00	레옹 / Luc Besson 11.04 15:00

### Ⅲ.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 발간

#### 1. 발간 개요

중앙도서관에서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7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간의 도서관 변화와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계승하고자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이하 70년사) 발간을 기획하였다. 이 자료는 선도적인 대학도서관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도서관 운영과 발전의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다.

도서관 70년사의 기본 발간 방향은 도서관 70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6년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서울대학교 도서관 50년사』(이하 50년사)의 편년체 구성과 분류사 체제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분야별 특징을 종합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946년 도서관 개관 이후 시설 및 공간, 인력 및 조직, 장서, 학술정보화, 이용자 서비스, 학과전담 연구지원, 홍보 및 대외 협력으로 주제를 나누어 분야별 변화와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 2. 집필진 구성 및 계획 수립

도서관 70년사 발간을 위해 2016년 4월초에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 집필진(이하 70년사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70년사 집필진은 그동안 추진했던 분야별 사업 자료를 망라 수집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조정 및 종합하여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70년사 집필진의 구성은 각 분야별로 내력을 잘 알고 있거나 또는 기술될 분야의 현재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자료 수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표 7]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 집필진 명단(2016. 4.)

업무별	소속	이름	담당 업무
정보관리과장		신승철	70년사 총괄
기획 및 출판	학술정보개발팀	홍순영	전체 내용 감수
	관정관서비스팀	김미향	내용 조정 및 종합
	관정관서비스팀	김기숙	사료 보존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	학술정보운영팀	김기태	인력 및 조직
	학술연구지원팀	홍순영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
	디지털도서관팀	김미향	홍보 및 대외 협력
	학술정보운영팀	정희주	시설 · 공간
	학술정보개발팀	민세영	학술정보 확충
	관정관서비스팀	김기숙	이용자 서비스
	디지털도서관팀	김현자	학술정보화
	학술정보운영팀	송지형	70년사 개관
	행정지원팀	신동원	부록(통계, 연표 등)

70년사 집필진은 발간될 70년사를 총 900페이지 분량으로 기획하고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인 10월 15일을 전후로 200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도서관 역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서 얻어진 여러 자료들은 한군데 모아 집필 과정에서도 이용하고 도서관의 귀중한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 사료실’을 설치하였다. 사료실은 본관 2층에 있으며 2014년까지 기획홍보실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공간이다.

아울러 70년사 집필진은 70년사 발간을 위해 흩어져 있는 도서관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며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6년 4월 중 대학본부 인사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원 학습·연구 동아리 지원’에 ‘도서관 70년사 연구 모임’(책임자: 신승철 정보관리과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학습동아리로 선정되어 연구 모임도 병행하였다.

### 3. 내용 구성

70년사는 50년사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최근 20년의 변화·발전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도서관의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거시적으로 조망하였다.

50년사는 시대 순의 편년체 서술 방식을 취했으나, 70년사는 공간, 조직, 학술정보, 이용자서비스 등 분야별 서술방식을 취했다. 또한 70년사는 분야별 서술 앞에 ‘개관’을 두어 종합사의 시각에서 도서관 7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70년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도서관 개관 이후 70년 동안 도서관의 주요 사안을 수록한 다양한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수집한 주요 자료로는 도서관 소장자료인 『서울대학교 도서관 50년사』, 『도서관보』, 『국공립대학도서관보』, 『서울대학교 50년사』, 『서울대학교 60년사』 등이 있으며, 『대학신문』에 수록된 도서관 관련 기사, 연도별 주요 업무 계획 및 간부회의 자료 등도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자로 발간한 학술정보백서나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등은 원고 작성 시 활용이 가능했으나, 시기별로 추진했던 주요사항 이외의 다양한 도서관의 활동을 기록으로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주요 업무 계획이나 간부회의 자료는 최근 5개년 정도만 남아 있었고, 행정포털에 있는 전자결재 문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것만 열람이 가능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록의 발굴은 쉽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누락되거나 찾지 못한 정보 등은 해당 시기 담당자의 기억을 더듬어 추적하는 형태로 도서관의 역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고충이 따랐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현업을 하면서 70년사 집필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록하였던 70년사의 개관과 분야별 서술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3.1. 개관

도서관 70년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개략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는 우리 도서관 전반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개관의 작성 원칙은 1946년 서울대학교 설립부터 2011년까지 그 간 도서관의 명칭이 변경되었던 시기를 기본으로 하여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개관 및 부속도서관 시절, 관악캠퍼스 이전 당시의 도서관, 80년대를 거쳐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변화되는 도서관의 다양한 모습, 연구중심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서관으로 구

분하였다. 그리고 구성한 네 부분을 역대 도서관장 재임기간 순서로 세분화하여 당시 도서관의 주요 쟁점과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도서관의 일련의 역사 흐름인 개관을 기술하기 위해 주로 참고했던 자료는 『대학신문』과 『도서관보』였으며, 이외에도 주요 일간지 등도 참조하였다. 또한 『대학신문』 기사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당시의 학내·외의 의견과 반응을 실감나도록 서술하여 도서관 70년 역사 이야기를 풀어냈다. 개관은 송지형 학예연구사가 8개월여 간의 많은 시간을 공들여 집필하였다.

### 3.2. 분야별 구성

분야별 내용 구성은 도서관의 기본 요소인 공간, 사서, 장서, 이용자를 근간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70년간의 업무를 총 7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개관과 다르게 구성하였다.

7개의 분야는 시설 및 공간, 조직 및 직원, 학술정보 확충, 학술정보화, 이용자 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홍보 및 대외 협력으로 하였다.

분야별 작성기준은 도서관 개관 이후 50년 동안의 사항은 50년사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도서관에서 있었던 주요 활동과 변화는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및 기록하였다.

#### 1) 시설 및 공간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학술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제1부를 시설과 공간으로 하였다. 제1부는 크게 대학 캠퍼스와 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관 학습공간과 이용, 시설 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대학 캠퍼스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전체적인 공간 변천 모습을 담았다. 동승동 시절의 도서관 공간 구성 및 활용,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신축과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간 및 시설 변화, 2015년 관정관의 신축을 통한 공간 확충까지 70년간 이루어졌던 도서관의 공간 구성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자료실 운영에서는 도서관 소장 자료유형별 운영하였던 각 자료실의 발전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시대별로 선호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자료 운영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학습공간과 이용에서는 열람실의 변천과 공동학습실,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시설 관리에서는 70년간의 시설 관리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 2) 조직 및 직원

제2부에서는 현대적 업무 확립에 따른 도서관 조직의 체계정립과 변화양상, 학술 정보 흐름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실행, 양질의 학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의 노력을 기술하였다.

제2부는 조직,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직원 역량강화로 구성하였고, 통시적 흐름에 따른 변화상을 순차적으로 담았다. 조직에서는 초창기 도서관 설립, 근대적 도서관을 위한 제도 정비, 관악캠퍼스 종합화에 따른 조직 변화, 법인화와 관정관 개관 이후 현 체제까지의 조직 변화를 담았다.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학술정보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선제적 노력을 계획 수립과 실행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직원 역량강화에서는 이용자 서비스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자한 조직차원의 노력을 담았다.

## 3) 학술정보 확충

도서관에 기본적인 공간과 조직이 형성된 후 필수적인 것은 장서로 제3부에서는 학술정보 확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장서가 학내 구성원들의 연구 및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공간과 조직을 기술한 다음으로 정하였다. 제3부에서는 크게 자료의 수집, 자료의 정리, 자료의 보존과 관리로 구분하여 집필하였다. 우선 자료 수집에서는 수집과 관련된 전반 과정을 기술하였고, 아울러 장서개발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장서 현황을 살펴보고, 자료 구입을 위한 특별 예산 확보, 자료 기증과 교환 등의 다양한 자료 수집의 변화를 담았다.

자료의 정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조직의 변천 과정을 분류,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서술하였다.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서는 고문헌자료, 제본, 마이크로필름, 장서관리 등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 4) 학술정보화

도서관은 1980년대부터 전산화를 시작한 후 최신의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반의 정보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제4부 학술정보화에 기술하였다.

제4부는 크게 학술정보화 사업의 시작, 학술정보화시스템의 변화, 전자도서관시스템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초창기 학술정보화 사업의 시작을 필두로 하여 1990년대 초반의 학술정보시스템(SOLARS) 개발 과정을 담았다. 이후 최신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학술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홈페이지의 개발, 기타 서비스 개발 및 도입, 전산장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전자도서관시스템과 디지털콘텐츠 구축에서는 전자도서관시스템 개발과 구축,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과 구축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기관 리포지터리인 S-Space 운영과 RFID 시스템 도입을 기록하였다. 학술정보 시스템 고도화에서는 최근 도입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디지털 자원관리 보존 시스템 Rosetta 구축 등을 정리하였다.

#### 5) 이용자 서비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도 점점 다양해져 제5부에서는 도서관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였던 이용자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제5부는 크게 초창기의 도서관 이용과 봉사, 대출·반납서비스의 개선, 자료 이용 환경의 변화, 이용자 학습 환경의 변화와 소통 강화, 상호협력을 통한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초창기 도서관 이용과 봉사는 도서관 건립 후 열악했던 도서관의 이용을 정리하였다. 대출·반납서비스의 개선은 1990년 이후부터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대출·반납 정책의 변화와 서비스 확대를 기술하였다. 자료 이용 환경의 변화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맞춰 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 환경과 서비스의 발전에 대해 정리하였다. 학습 환경의 변화는 도서관 운영 시간과 출입 방식의 변화,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담았다. 상호협력을 통한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는 상호대차서비스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서술하였다.

#### 6)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

제6부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학과전담연구지원서비스를 출범하여 이후 서비스의 발전 과정을 다루었다.

우선 학과전담연구지원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조직 체계 정립 및 수행 업무의 정의를 다루었고 이후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과 교수 리에종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이용교육, 참고봉사 서비스 등을 서술하였다. 서비스의 발전과정은 발전 기반 강화에 따른 조직 체계 변화 모습과 학과전담 사서의 역량 강화, 홍보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노력, 확장된 교수 리에종 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의 확대, 참고서비스, 장서개발 등을 기술하였다.

### 7) 홍보 및 대외 협력

제7부에서는 도서관의 홍보 활동 및 대외 협력 활동을 기술하였다. 이는 우리 도서관이 공간, 조직, 장서, 시스템,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제7부는 크게 도서관 홍보 업무, 도서관 대외 협력, 펀드레이징 도입 및 성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도서관 홍보 업무는 우리 도서관의 홍보 전담 부서 도입에 따른 조직의 변화, 매년 도서관의 주요 역사를 담은『도서관보』발간, 도서관이 주관하였던 중요 전시회, 홍보 자료 제작의 활동을 다루었다. 대외 협력은 협력 기관과의 주요 활동,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 참여한 활동, 학술교류협정 체결 등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초기 도서관 발전 기금 관련 주요 기금 모금 현황과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금 모금 노력과 성과를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 3.3. 부록

70년사의 부록은 50년사에 기술되었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실었고, 이후 20년간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부록의 구성은 관련 규정 및 내규, 조직 및 직원, 연도별 예산 및 도서구입비, 장서 및 자료 현황, 이용통계, 중앙도서관 발간간행물 목록, 연표 등으로 하였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관련 규정 및 내규는 서울대학교도서관 규정과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사항과 사무분장 규정 등을 정리하였다. 조직 및 직원에는 70년간 주요 조직의 변천과 연도별 정원, 역대 관장 명단을 수록하였다. 연도별로 예산 및 도서구입비, 장서 및 자료 현황, 이용 통계를 정리하였으며, 우리 도서관이 발간한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로 주요 업무를 연표로 모아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원고가 완성된 이후에는 편집팀(김미향, 김기숙, 송지형, 신동원)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내용의 균형을 맞추고 추가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였다. 최종 윤문작업자(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최보람)가 원고 교열과 윤색을 도왔다. 70년사는 2017년 4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 VII. 기념사업을 마치며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아쉬웠던 부분은 도서관의 기록을 찾는 과정이었다. 개관 이래 현재까지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도서관보』가 그나마 도서관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하지만 최근 발간한 도서관보의 경우 논고나 출장보고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우리 도서관의 발자취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도서관 소식에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보』이외에 『대학신문』, 『서울대학교 도서관 50년사』 및 『서울대학교 60년사』, 각종 도서관 발전계획 등도 전시 구성 및 전시 자료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시 준비에는 자료만큼이나 그 자료를 담을 공간도 중요하였다. 전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용자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로비 공간을 전시장으로 마련하다보니, 전시 기간이나 조명, 전시물 설치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상설 전시를 위한 공간 마련이 된다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책과 기록을 통해 상시적으로 도서관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축한 관정관에서 보여줄 전시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본관 전시와는 차별화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다행히 ‘세계기록총회<sup>2)</sup>’의 구글(Google) VR 콘텐츠 체험을 본 후 가상현실체험존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메시스크린을 통해 상영한 다양한 영상은 디지털도서관팀원의 협업을 통해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아트 그룹 ‘에브리웨어’의 전시회도 유치를 위해서 수차례 방현우 동문에게 요청하여 성사되었다. 이 전시회는 학생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로 한층 이용자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울대인이 사랑한 영화를 만나다’를 통해서도 도서관 영상자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담당한 전시 주제 및 업무별 세부사항을 맡은바 열심히 수행해준 전시 TF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이 글을 마

2) 박물관총회(ICOM), 도서관총회(IFLA)와 함께 유네스코 주관 세계 3대 문화총회로 기록 분야 최대 국제행사임. 2016년 9월 5~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록, 조화와 우애’라는 주제로 제18회 세계기록총회를 개최되었음.

무리하며 전시를 추진했던 팀원들에게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70년사 발간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도서관 개관 후 70년간의 도서관 역사를 몇 개월 동안 기술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매일 진행하면서 정작 도서관에서 이뤄낸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는 일상의 업무에 쫓겨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업무가 세부적으로 분담되어 있어 각자 맡은 업무에만 치중하다보니 다른 업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듯하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서관보』나 간부회의 자료 등에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잘 정리하여 기술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와 사건들을 모두 체계화하여 기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도서관 전반의 역사를 각자 맡은 업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록을 꾸준히 한다면 다음에 기술될 도서관 80년사, 90년사, 100년사는 보다 이야기가 풍부해질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했다. 현재는 과거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된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의 현재 역사를 보다 소중히 지키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후배들이 서울대 도서관을 더 빛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배와 후배가 소통되길 바란다.